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heongnan-Gongsin-Nokgwon*
of Sin Gyeong-Haeng, Chung-Ik-Gong

朴文烈(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3.2 原文
2. 清難功臣	3.3 錄券의 分析
3. <清難功臣錄券>	4. 結言
3.1 形態事項	<參考文獻>

< 초 록 >

본고는 朝鮮朝 宣祖 37(1604)년에 清難功臣 제3등으로 책봉된 忠翼公 辛景行의 <清難功臣錄券>에 관한 연구이다.

錄券의 물리적 형태는 폭 38.0cm 길이 162.0cm의 卷軸裝 형태이며 체제적 형태는 敎書의 형태이다. 書體는 楷書體이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良好한 상태이다.

錄券의 첫머리에는 清難功臣號와 수급자의 職銜 및 수급자 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清難功臣의 愛國觀과 공적에 대한 致辭와 褒賞規定이 기록되어 있다. 錄券의 말미에는 清難功臣의 功臣等級과 등급에 따른 功臣名은 물론 녹권 發給과 施行의 時期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發給 및 施行年度의 위에는 “施命之寶”라는 印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 研究는 조선시대 중기의 功臣과 錄券에 관한 概括은 물론 政治·社會·文化 등의 斷面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어: 李夢鶴, 清難功臣, 錄券, 清難功臣錄券, 清難功臣敎書, 辛景行

* 清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04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hysical and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Cheongnan-Gongsin-Nokgwon* (청난공신녹권). This certificate of national meritorious retainer was granted by Joseon Royal Dynasty to Sin Gyeong-Haeng(신경행), Chung-Ik-Gong(충익공). He was rewarded a 3rd grade meritorious retainer at 1604, 37th year of King Seonjo in Joseon dynasty.

On the view of physical point, the size of the certificate of national meritorious retainer is 38.0cm high, and 162.0cm wide. And its format is made by a bull Roll and its calligraphic style is a 'regular square-hand' style.

On the view of textual point, the certificate of national meritorious retainer describes an award for his contribution to the up-press against a rebellion of Lee Mong-Hak(이몽학).

Keywords: Lee, Mong-Hak. the *Cheongnan-Gongsin-Nokgwon*. the Certificate of National Meritorious Retainer. Sin Gyeong-Haeng.

K C I

1. 緒言

功臣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을 호칭하는 것이다. 功臣錄券은 功臣들에게 賜給되는 敎書 혹은 錄券 형태의 功臣證明書이다.

功臣에 대하여 훈적을 冊錄하는 제도는 중국의 唐朝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功臣제도를 수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왔던 듯하다. 우리나라 功臣제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에 들면서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功臣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忠北 槐山郡 淸安面 文芳里 153번지의 靈山·寧越辛氏 德齋公派 宗中에는 忠翼公 辛景行(1547-1623)에게 사급된 <清難功臣錄券>¹⁾ 1軸이 所藏·傳來²⁾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 유일의 <清難功臣錄券>으로 1979년 9월 29일에 충청북도 地方有形文化財 제5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8월 21일에 寶物 제1380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忠翼公 辛景行은 明宗 2(1547)년에 출생하여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義兵을 일으켰고 宣祖 29(1596)년에 일어난 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헌하여 清難功臣 3등에 봉해졌다. 그 후 여러 官職을 거치다가 國政이 혼미해진 光海君朝에 벼슬을 버리고 淸安의 礪溪로 돌아와 釣隱亭을 세우고 후일을 보내다 仁祖 원(1623)년 정월에 享年 77세로 卒去하였다. 그러나 <清難功臣錄券>을 비롯하여 清難功臣 忠翼公 辛景行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던 듯하다.

본고는 清難功臣의 개괄을 중심으로 <清難功臣錄券>에 관하여 분석적으로 고구하고자 한다.

-
- 1) 본 <清難功臣錄券>은 清難功臣 제3등 신경행에게 敎書형태로 사급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功臣의 증명서로는 敎書·錄券·錄冊의 형태가 있다. 따라서 본 錄券은 <清難功臣敎書>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나, 본고가 功臣錄券과의 연관성에서 고구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清難功臣錄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2) 靈山·寧越辛氏 德齋公派 宗中에는 이외에도 影幀 1幅, 諡號 및 諡號記 2枚, 敎旨 1枚, 諭書 1枚, 「清難原從功臣錄券」 1冊 등이 소장되었는데, 2003년에 8월 21일에 보물 제138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그 후에 종중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國立淸州博物館에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현재 이들은 國立淸州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2. 淸難功臣

淸難功臣은 조선시대 宣祖 때에 일어난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을 세운 功臣들에게 내려진 功臣號이다.

朝鮮朝 宣祖 29(1596)년 7월 1일에 충청도 鴻山의 庶人 李夢鶴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³⁾

이몽학은 宗姓의 庶族으로서 湖西에서 중군할 적에 操練將官이 되어 鴻山 無量寺에 우거하면서 選鋒將 韓絢 등과 친교를 맺었다. 이몽학은 어리석고 재능이 없었으나 韓絢은 교활하고 일에 매우 밝았다. 당시 「紀效新書」의 束伍法으로 군사를 배치하고 그 技倆을 훈련시켰는데 韓絢은 權仁龍·金時約 등과 함께 모두 庶人으로 應募하여 모두 선봉장이라 호칭하면서 御使 李時發의 휘하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湖西의 군사조련을 관할하면서 民心이 점차 탄식과 원망으로 차가고 크고 작은 고을에 한결같이 防備가 제대로 없음을 알고 이 틈을 타서 亂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때 韓絢이 마침 父親喪을 당하여 鴻州에 있다가 우선 李夢鶴에게 舉事하도록 하고 자신은 內浦에서 서로 호응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⁴⁾

이몽학은 無量寺의 窟속으로 잠입하여 僧尼들과 더불어 旗幟와 器杖을 만들었다. 湖西의 풍속에는 흔히 同甲會를 만들었는데, 이에 그 패거리를 시켜 契를 만든다고 宣傳하고 동네 어귀 들판으로 모이게 했다. 이몽학은 無量寺에서 出兵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 깃발을 세우고 걸상에 앉아 角을 불고 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동갑 모임 중에서 公募한 壯丁이 먼저 나와 칼을 뽑아 들고 무리를 데리고 달려

3)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29年 7月 丙寅條.

忠淸道洪山庶人李夢鶴 翠兵作亂.

4)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29年 7月 丙寅條.

… 夢鶴 宗姓孽裔也 從軍在湖西 爲操練將官 寓鴻山無量寺 與選鋒將韓絢等 交結 夢鶴 愚狂無賴 而絢則狡獪練事 時以紀效新書束伍法 置軍練技 絢與權仁龍·金時約等 皆以庶人應募 俱稱選鋒將 屬御使李時發 任使絢 管湖西操練 見民心咨怨 州郡無備 欲乘釁作亂 絢適以父喪在鴻州 先令夢鶴 舉兵而已 自內浦相應 約已定 ….

나갔다. 李夢鶴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이 義學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拒逆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順從하는 자는 賞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꾀니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으며, 저마다 스스로 高官大爵이 될 것으로 여기고 聖佛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면서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僧侶와 俗人을 將軍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文官과 武官 등의 淸顯職으로 가칭하니 士族의 자제와 무뢰배들이 많이 그들에게 붙었다.

그날 밤에 鴻山縣을 습격하여 縣監 尹英賢을 사로잡고 또 林川郡守 朴振國을 사로잡았다. 모두 항복하여 李夢鶴에게 붙으니 上賓으로 대우했다. 잇따라 林川·靑陽·定山·大興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고을을 함락시키니, 首領들은 모두 먼저 도망치고 衙前과 백성들은 적들의 호령에 따랐고 술과 음식을 차려서 맞이하였으며 군사를 뽑아 그들에게 가세하였다. 이에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들에게 투항하는 자가 줄을 이어 군사가 수만 명에 달하자 ‘忠勇將 金德齡과 義兵將 郭再祐·洪季男 등이 모두 군대를 연합하여 도우고 있으며 兵曹判書 李德馨이 內應을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자 中外가 놀라 민심이 술렁거렸다.⁵⁾

亂軍들이 그 여세를 몰아 洪州城을 침범하자 牧使 洪可臣은 武將 朴名賢·林得義 등과 함께 이를 토벌하고 난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으며, 이때 辛景行은 巡察使의 從事官으로서 城 안으로 달려 들어가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亂軍을 막아내는 공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선조 29(1596)년 7월 13일에 備邊司에서 5읍을 함락한 역적들을 섬멸한 洪州牧使 洪可臣 등의 褒獎을 주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비변사의 유사였던 당상 金命元·尹先覺·李德馨 등이 宣祖에게 “삼가 水

5)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29年 7月 丙寅條.

… 夢鶴 潛於無量寺窟室中 與僧徒 造作旗幟器仗 湖俗 常作同甲會 乃令同黨 倡爲契 會于洞口之野 夢鶴 從寺中出兵 洞中椅坐堅旗 吹角擊鼓 號召其衆 甲會中 先有同謀丁壯 發刃麤衆越進 夢鶴 誰誘以舉此義 當安民定國 違者誅死 順者受賞 衆皆謹讓而從之 人人自以爲得高官大爵 稱以聖佛出世 乃分置僧俗將軍 文武假稱 淸顯官職 士族子弟無賴者 多附之 夜襲鴻山縣治 縣監尹英賢被執 又執 林川郡守朴振國 皆降附夢鶴 待以上賓 轉陷靑陽·定山等六邑 守令 皆先避逃 吏民 皆從賊號令 酒食迎候 抄兵附益 聞風釋鋤 投屬者相繼 軍至數萬 聲言忠勇將金德齡 義兵將郭再祐·洪季男等 皆連兵相助 兵曹判書李德馨 爲內應云 中外震撓.

使 崔湖의 啓本을 살피건대, 흉악한 逆賊들이 비록 갑자기 일어난 烏合之卒이라고는 하나 여러 고을의 불량한 무리들을 모아 잇따라 鴻山·林川·靑陽·定山·大興 등 5읍을 모두 함락시키고 기세가 鷓張하므로, 수령들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도피했으니 어떻게 地境을 보존하여 逆賊을 토벌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洪州牧使 洪可臣이 유독 앞장을 서서 軍民을 거느리고 굳게 지키는 계책을 세웠기 때문에 遠近에서 풍문을 듣고 모두 洪州로 돌아오게 되어 城을 완전히 지키고 역적들을 섬멸하게 되었으니, 그의 공이 가상합니다! 朴名賢은 남보다 앞서 出擊하였으니 공이 그 다음이고 林得義·朴東善·黃應聖 등도 모두 기록할 만한 공이 있으며, 崔湖는 主將으로서 장사들을 거느리고 독려하여 흉악한 역적들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고 辛景行은 巡察使의 從事官으로 本州의 성안에 달려 들어가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막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타의 將帥들도 차례차례 論功해야겠지만 우선 이 사람들을 褒獎하여 온 道內의 사람들이 聳動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인 듯하고 일이 恩命에 관계된 것이기에 감히 稟啓를 합니다!”⁶⁾고 하였다.

이러한 대신들의 주청에 대해 宣祖는 “이번의 역적들을 섬멸한 공은 崔湖가 上等이다. 崔湖는 水使로서 역적에 대한 奇別을 듣자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巳時에 鴻州에 들어갔는데 申時에 역적의 무리가 와서 屯을 쳤으니, 농성하며 출격하는 지휘와 절제가 모두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대개 崔湖가 성 안에 들어가자 士氣가 자연히 倍加되었고 이에 따라 出擊함에 역적의 무리가 저절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崔湖 이하의 모든 사람들도 즉시 시상해야 하겠으나 아직은 며칠을 기다리라!”⁷⁾고 하였다.

6)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29年 7月 戊寅條.

備邊司(有事堂上金命元尹先覺李德馨)啓曰 伏見水使崔湖啓本 凶賊 雖云烏合猝起 而聚合數邑不逞之徒 連陷五邑(鴻山·林川·靑陽·定山·大興) 氣勢鷓張 守令望風皆避 奚以保境 勦賊爲心 而洪州牧使洪可臣 獨能倡率軍民 爲嬰城固守之計 故遠近聞風 皆以洪州爲歸 以至全城滅賊 其功爲可嘉 朴名賢 先登出擊 其功次之 林得義朴東善·黃應聖等 皆有可紀之效 崔湖以主將 督率將士 致有剿滅兇賊之功 至於辛景行 以巡察從事 馳入本州城中 與諸人同力 多有捍禦之事 他與將次第論功 而此人等爲先褒獎 以之聳動一道 人人似不踰時之義 事係恩命敢品.

7)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29年 7月 戊寅條.

그 뒤 선조 34(1601)년 4월 24일에 領議政 李恒福, 右議政 金命元 등이 洪州討逆 功臣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宣祖에게 보고하면서 “역적 李夢鶴을 토벌할 때에 공을 세운 사람을 錄勳할 것으로 傳旨가 계셨으니 의당 元勳과 상의하여 마련해야 하나, 洪可臣이 마침 陳疏하여 사양하고 있어 감히 더불어 의논하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비로소 등급을 나누어 入啓합니다! 당초 林億明이 역적의 魁帥를 직접 목을 베었으니 錄勳에 참여되어야 할 것 같으나, 林億明이 역적의 기세가 한창일 때에 기이한 계책을 내고 목을 베어 바쳤더라면 당연히 으뜸의 功이 되었겠으나 洪州를 포위하였다가 와해되고 역적의 무리가 붕괴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된 뒤에야 비로소 목을 베어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死罪를 용서해 주어 나라에 충성을 바친 것에 대하여 상을 내림으로써 당시 모두를 격동시킨 조치를 한 것은 괜찮지만 正勳에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群議가 모두 오히려 못하게 여기므로 감히 기록하여 入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각 官員의 공로의 高下에 대하여는 일이 갑자기 지방에서 일어났으므로, 功勞의 輕重을 參酌하는 일은 모두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는 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洪可臣에게 물어서 등급을 헤아려 별도로 기록해서 아뢰입니다! 洪州討逆 功臣으로 第1等은 洪州牧使 洪可臣이고, 第2等은 공을 세워 충성을 바친 朴名賢, 水使 崔湖이며, 第3等은 兵使 李時言, 巡按御史 李時發, 從事官 辛景行, 把摠 前郡守 林得義, 千摠 前郡守 朴震男, 把摠 前郡守 元墀, 藍浦縣監 朴東善, 保寧縣監 黃應星, 把摠 前縣監 李用沉, 生員 李翼賓 등이옵니다!”⁸⁾고 하니, 宣祖는 “요즘 기후가 평안하

… 上曰 今此滅賊之功 崔湖爲上 崔湖以水使 聞賊奇 率兵馳赴 巳時入洪州 申時賊衆來屯 其嬰城出擊 指揮節制 皆出於此人 蓋湖入城中 士氣自倍 因而出擊 賊衆自潰 崔湖以下諸人 當卽施賞 但姑待數日.

8)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4年 4月 辛卯條.

領議政李恒福 右議政金命元啓曰 逆賊夢鶴討滅時 有功人入錄勳事 前有傳旨 當與元勳 相議磨鍊 而洪可臣 方陳疏控辭 不敢與議 故今始等第入啓 當初林億明 親斬逆魁 似當參錄 而億明 若於賊盛之時 出奇斬獻 則當爲首功 及洪州圍解 賊徒奔潰 事無奈何 然後始斬來獻 當其時也 貸其應死之罪 賞其自效之意 以爲一時聳動之舉 則可也 至參正勳 群議皆以爲未便 故不敢錄啓 其餘各官功勞高下 事在外方 倉卒之中 參酌輕重 皆親知目見者 所可能爲 故聞於洪可臣 商議等第 別錄以啓 洪州討逆 功臣一等 洪州牧使洪可臣 立功自效 朴名賢 水使崔湖 二等兵使李時言 巡按御使李時發 從事官辛景行 把摠前郡守林得義 千摠前郡守朴震男 把摠前郡守元墀 藍浦縣監朴東善 保寧縣監黃應星 把摠前縣監李用沉 生員李翼賓.

지 못하여 公事를 살필 수가 없으니, 뒤에 조치하겠다!”⁹⁾고 批答하였다.

이에 선조 35(1602)년 7월 23에 備邊司에서 “전일 功臣都監의 啓辭에 淸難과 征倭 功臣을 주관하여 마련할 元勳을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해서 啓稟하여 시행하게 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允許를 내리셨습니다. 淸難功臣은 전년에 洪可臣에게 주관하여 마련케 했으니, 洪可臣을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시어 마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며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有功者들에 합리적인 賞을 주도록 제안¹⁰⁾하여 淸難功臣에 대한 공적의 查勘과 監定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淸難功臣과 淸難原從功臣의 책봉을 위한 「宣祖實錄」의 여러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淸難功臣 및 淸難原從功臣 冊封의 關聯記事

年代	朝 代	月 日	內 容	備 考
1596	宣祖 29	07 13	備邊司에서 逆賊을 섬멸한 공로자의 褒獎을 청하다	
1601	宣祖 34	04 24	李恒福 등이 洪州討逆功臣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보고하다	
1602	宣祖 35	07 23	비변사 淸難 有功者에게 합당한 賞을 주도록 청하다	
1603	宣祖 36	07 26	司諫院이 李時言·李時發·林億明 등의 淸難勳의 삭제를 청하다	
		07 27	사간원이 李時言·李時發·林億明 등의 淸難勳의 삭제를 청하다	
		07 28	사간원이 李時言·李時發·林億明 등의 淸難勳의 삭제를 청하다	
		07 28	간원들이 李時言 등의 일로 사직을 청하다	
		07 29	司憲府가 李時發·林億明 등의 淸難勳의 삭제를 청하다	
		08 04	사헌부가 淸難功臣 삭제의 일을 아뢰다	
		08 04	사간원이 淸難功臣 삭제의 일을 아뢰다	
		08 10	간관들이 淸難功臣 삭제의 일을 논하다	
		08 17	사헌부가 淸難功臣의 錄功에 대해 아뢰다	

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4年 4月 辛卯條.

… 答曰 予近日氣候不平 公事不能察見 隨後發落.

1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5年 7月 壬午條.

備邊司郎廳 以大臣意 啓曰 前日功臣都監啓辭內 淸難 句管磨鍊元勳 令大臣商議 啓稟施行 允下矣 淸難功臣 則上年以洪可臣 句管磨鍊 洪可臣 斯速下諭上來 使之磨勘宜當.

- 09 15 왕이 清難元勳功臣의 도태와 추고를 못하게 하다
 09 16 사헌부가 清難功臣의 淘汰와 삭제에 대해 논하다
 09 17 사헌부가 清難功臣의 개정에 대해 논하다
 1604 宣祖 37 06 25 扈聖·宣武·清難功臣을 책봉하다
 10 28 扈聖·宣武·清難功臣들을 策勳하고 會盟하다
 10 29 清難功臣敎書를 반급할 때에 別敎書를 宣讀하다
 1605 宣祖 38 03 14 사헌부가 清難原從功臣의 정리 및 改正을 청하다
 03 15 사헌부가 清難原從功臣의 도태를 청하다
 03 16 사헌부가 清難原從功臣의 정리 및 개정을 청하다
 03 16 사간원이 清難原從功臣의 정리 및 개정을 청하다
 03 17 사간원이 清難原從功臣의 정리 및 개정을 청하다
 03 17 사헌부가 清難原從功臣의 정리 및 개정을 청하다
 03 26 왕이 清難原從功臣 995명을 傳旨로 啓下하다
 04 16 왕이 清難原從功臣 995명을 전지로 계하하다

청난공신은 원래 선조 34(1601)년 4월 24일에 領議政 李恒福, 右議政 金命元 등이 洪州討逆功臣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선조께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제1등에는 洪可臣 1명, 제2등은 朴名賢과 崔湖 2명, 제3등은 李時言·李時發·辛景行·林得義·朴震男·元堉·朴東善·黃應星·李用沉·李翼賓 등 10명으로 도합 13명¹¹⁾이 清難功臣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선조 36(160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司諫院과 司憲府 및 諫官들이 李時言·李時發·林億明 등을 비롯한 일부 清難功臣들의 淘汰·推考·削勳 등을 끊임 없이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宣祖는 선조 36(1601)년 9월 15일에 清難元勳功臣의 淘汰와 推考를 금하도록 하명¹²⁾하였다.

1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4年 4月 辛卯條.
 領議政李恒福 右議政金命元啓曰 … 別錄以啓 洪州討逆功臣一等 洪州牧使洪可臣 立功自效 朴名賢 水使崔湖 二等兵使李時言 巡按御使李時發 從事官辛景行 把摠前郡守林得義 千摠前郡守朴震男 把摠前郡守元堉 藍浦縣監朴東善 保寧縣監黃應星 把摠前縣監李用沉 生員李翼賓.
 12)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6年 9月 戊辰條.
 … 姑勿論其是非 而敎書以下之後 論之顛倒 再三勘定 元勳大臣 亦豈偶然計 而必欲盡改 未知果當不可推考 亦無改勘之事.

마침내 선조 37(1604)년 6월 25일에 領議政 李恒福, 右議政 金命元 등의 최종 제의에 따라 功臣을 3등으로 구분하여 清難功臣으로 책록¹³⁾하였는데, 제1등 功臣 洪可臣에게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의 功臣號와 포상 및 부상을 하사하고 제2등 功臣 朴名賢과 崔湖에게 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의 功臣號와 포상 및 부상을 하사하였으며 제3등 功臣 辛景行과 林得義에게는 奮忠出氣清難功臣의 功臣號와 포상 및 부상을 하사하였던 것¹⁴⁾이다.

그러나 清難功臣의 책봉에 대한 후세의 反論도 만만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조 37(1604)년 6월 25일 기사의 史論에서도 알 수 있다. 당일의 扈聖功臣, 宣武功臣, 清難功臣 등을 책봉한 記事의 말미에 나타나는 史論에는 “李夢鶴의 난에 이르러서는 州郡에서 불러 모은 도적 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討平한 것이 어찌 功이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丹書鐵券을 만든 것이 당초 어찌 이처럼 구차한 데에 쓰려고 한 것이겠는가!”¹⁵⁾라고 하였다. 이는 清難功臣 책봉에 대한 史官들의 매우 비판적인 기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清難功臣들에게는 宣武功臣 및 扈聖功臣들과 함께 會盟祭¹⁶⁾와 宣教禮¹⁷⁾를 거친 뒤에 功臣敎書가 반급¹⁸⁾되었다.

-
- 13)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6月 甲辰條.
大封功名 … 以討平李夢鶴 爲清難功臣 分三等 錫號有差 … 其清難一等 洪可臣 爲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 二等 朴名賢·崔湖 爲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 三等 辛景行·林得義 爲奮忠出氣清難功臣 各賜爵封君 凡五人.
- 14)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6月 甲辰條.
大封功臣 … 以討平李夢鶴 爲清難功臣 分三等 錫號有差 … 清難 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崔湖 三等 辛景行·林得義 凡五人 … 清難 一等 賜奮忠出氣合謀迪毅之號 二等 減合謀二字 三等 又減迪毅二字.
- 15)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6月 甲辰條.
史臣曰 … 至於潢池弄兵之賊 不過州郡嘯聚之徒也 則其所以攻之者 烏足爲功也 丹書鐵券之設 初豈若此之苟也.
- 16)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甲戌條.
…上 自時御所 動駕 詣神武門外會盟壇所 … 五更一點行事 如儀.
- 17)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行三功臣 宣教禮.
- 18)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功臣頒敎書.

또한 清難功臣을 원증한 清難原從功臣은 도합 995명이었다. 이들의 清難原從功臣 책봉에 대해서도 선조 38(1605)년 3월 한 달 동안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여러 차례 정리 및 개정을 주청하였으나, 마침내 선조 38(1605)년 3월 26일에 1차로 清難原從功臣 995명에 대해 啓下¹⁹⁾하고 동년 4월 16일에는 2차로 啓하²⁰⁾하면서 清難原從功臣의 책봉문제도 마무리 되었다.

1차와 2차에 걸쳐 清難原從功臣들을 啓하면서 내린 傳旨²¹⁾는 다음과 같았다.

“의리로 일어나 역적을 토벌하여 모두 殉國한 정성을 바쳤는데, 큰 賞으로 공훈에 보답함에 있어 어찌 기록에 남기는 은전을 인색하게 하겠는가. 귀천이 없이 모두 기록하였으니 어찌 크고 작은 공을 흑시라도 누락시켰겠는가! …무릇 험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모두 原從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대들의 마음과 공적을 가록하게 여기어 이미 공훈을 기록에 남겼고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해 길이 산천을 두고 맹세하였으므로 이를 교시하니 잘 알기 바란다!”는 傳旨는 내렸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清難功臣은 忠淸道 洪州地域에서 일어난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헌한 功臣의 칭호이며 清難功臣과 清難原從功臣으로 나누어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清難功臣錄券>

<清難功臣錄券>은 李夢鶴의 난을 평정한데 공헌한 5명의 공신들에게 사급된 敎書형태의 녹권이다.

1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8年 3月 庚子條.

20)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8年 4月 庚申條.

21)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8年 3月 庚子條 및 4月 庚申條.

啓下清難原從功臣九百九十五人. 傳旨 仗義討賊 咸效循國之忱 懋賞酬勳 何惜紀鼎之學 無貴賤而竝錄 豈細大而或遺 … 凡有協贊之勞 悉預原從之列 嘉乃心乃績 旣載旂常 傳之子之孫 永誓帶礪 故茲教示 想宜知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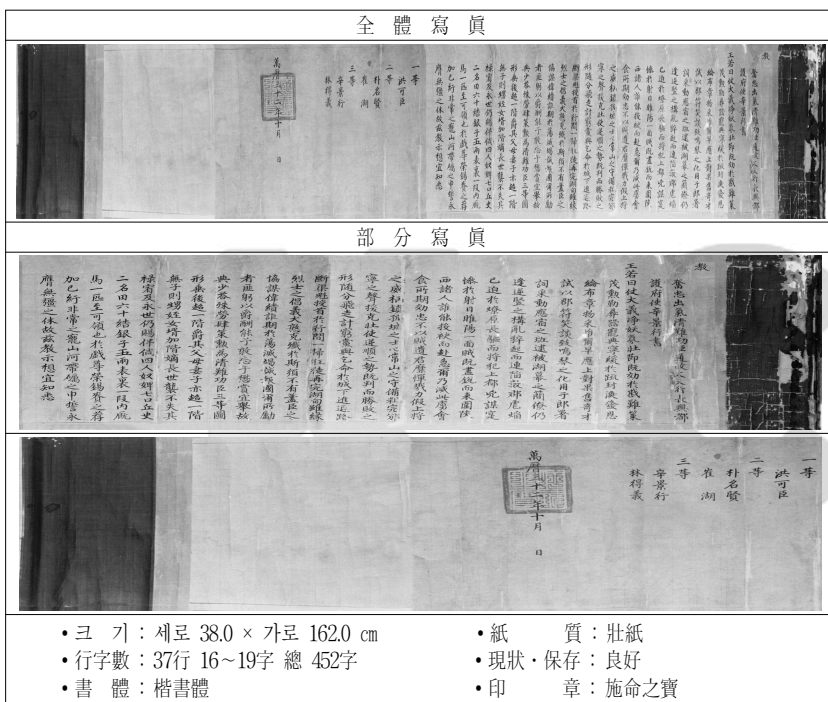
3.1 形態事項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은 敎書의 형태로 淸難功臣 제3등 辛景行에게 賜給된 錄券²²⁾이다. 5명의 淸難功臣 각각의 개인에게 사급된 것 중의 하나이다.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물리적 형태는 폭 38.0cm 길이 162.0cm의 卷軸裝 형태이며 체제적 형태는 敎書의 형태이다.

敎書의 내용을 기록한 필체는 楷書體이며 보존상태는 새로이 배접하면서 다소 변모되었을 뿐 내용의 손상이 없는 비교적 良好한 상태이다.

<그림 1> 忠翼公 辛景行 <清亂功臣錄券>의 形態



22)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淸州博物館 所藏.

3.2 原文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²³⁾

教□□□□□□□□□□□□□□□□□□
 □奮忠出氣清難功臣通政大夫行長興都□□
 □護府使辛景行書□□□□□□□□□□
 王若曰仗大義淨妖氣壯節旣效於戡難策□□
 □茂勳勒彝器寵典寧緩於疏封渙發恩□□□
 □綸布章物采惟爾早應上對果售奇才□□□
 □試以郡符笑談致鳴琴之化用于郎署□□□
 □詞采動應宿之班逮被湖幕之簡僚仍□□□
 □逢逆豎之構亂猝起而連陷數郡虎炳□□□
 □已迫於燎原長驅而將犯上都兇謀寔□□□
 □慘於射日睢陽一面賊旣盡銳而來圍陝□□
 □西諸人誰能投袂而赴急爾乃滅此虜會□□
 □食所期效忠不以賊遺君靡憚戮力假上將□
 □之威柄鎮孤城之士心常山之守備粗完邠□
 □寧之聲援克壯使逆順之勢旣判而勝敗之□
 □形隨分飛走計窮黨與乞命於城下進退路□
 □斷渠魁授首於行間一掃狂徒再完湖甸雖緣□
 □烈士之倡義大憝克殲於斯須不有蓋臣之□
 □協謀偉績詎期於蕩滅竭誠報國爾所勸□□
 □者匪躬以爵酬能予敢忘于懋賞宜舉故□□
 □典少答殊勞肆策勳爲清難功臣三等圖□□



23)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 形垂後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一階
- 無子卽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不失其
- 祿宥及永世仍賜伴佾四人奴婢七口丘史
- 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內廡
- 馬一匹至可領也於戲尊榮錫賚之荐
- 加已紆非常之寵山河帶礪之申誓永
- 膺無疆之休故茲教示想宜知悉
- 一等
- 洪可臣
- 二等
- 朴名賢
- 崔湖
- 三等
- 辛景行
- 林得義

萬曆三十二年十月日

施命之寶

3.3 錄券의 分析

본 忠翼公 辛景行 <淸難功臣錄券>의 체제는 다른 功臣敎書에서 볼 수 있는 체제와 대동소이하다.

<淸難功臣錄券>의 첫머리에는 淸難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 및 수급자 姓名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淸難功臣錄券>의 본문에는 淸難功臣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忠誠된 마음과 뛰어난 기백을 찬양하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 功臣이 된 내력과 국왕이 내린 토지 및 노비 등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다. <淸難功臣錄券>의 말

미에는 錄券을 發給한 日字와 ‘施命之寶’라는 印章가 捺인되어 있다.²⁴⁾

이상의 여러 사항들을 분석하여 논급하면 다음과 같다.

3.3.1 受給者 辛景行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첫머리에는 “奮忠出氣清難功臣 通政大夫行 長興都護府使 辛景行”과 같이 清難功臣號와 수급자의 職銜 및 수급자 姓名이 기록²⁵⁾되어 있다.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수급자인 辛景行²⁶⁾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道伯 호는 釣隱이었으며 본관은 靈山이었다.

「靈山·寧越辛氏大同譜」²⁷⁾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忠翼公 辛景行的 系譜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辛景行的 系譜

辛鏡(始祖)－運敏(2)－永繼(3)－夢森(4)－覺繼(文宗公, 5)－百鍊(6)－喜(7)－至和(8)－藏(9, 德齋公派)－引裾(10, 德2)－慶芬(11, 德3)－中善(12, 德4)－堉(13, 德5)－自金(14, 德6)－世胄(15, 德7)－堉(16, 德8)－景行(忠翼公, 17, 德9)－劫(18, 德10)－倜(19, 德11)－迥(20, 德12)－振翼(21, 德13)－薰(22, 德14)－泰增(太23, 德15)－守默(24, 德16)－復欽(25, 德17)－永錫(26, 德18)－成模(27, 德19)－炳祚(28, 德20)－鳳圭(29, 德21)－鉉洙(30, 德22)－昇泳(31, 德23)－同竣(32, 德24) ……

한편, 忠翼公 辛景行과 관련하여 「朝鮮王朝實錄」²⁸⁾의 기사검색과 「靈山·寧越辛

24)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25)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卷頭部 參看.
 26) 辛景行 : 조선의 功臣으로 자는 伯道, 호는 釣隱이고 본관은 靈山이며 習讀 堉의 아들이었다. 1573(선조 6)년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1577(선조 10)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1596(선조 29)년 從事官으로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1604(선조 37)년에 清難功臣 3등이 되고 靈城君에 봉해졌으며 兵馬節度使에 이르렀다. 禮曹判書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忠益이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395.>
 27)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全16冊. (大田: 譜文出版社, 2002.) 忠翼公의 後系는 文化財指定申請書에 나타난 申請者 辛鉉洙를 위주로 하였다.
 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氏大同譜」²⁹⁾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辛景行의 生涯와 官職

年代	朝 代	日 月	年 歲	內 容	備 考
1547	明宗 02		01	出生하다	族譜
1573	宣祖 06		27	進士試 合格하다	族譜
1577	宣祖 10		31	文科에 及第하다	族譜
1592	宣祖 25	09 10	46	韓山郡守에 除授되다 義兵을 일으키다	實錄 族譜
1595	宣祖 28	12 28	49	金應南이 활을 잘 쏘는 公의 敍用을 아뢰다	實錄
1596	宣祖 29	07 13	50	李夢鶴의 난을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막아내다	實錄·族譜
		07 18		金德齡의 체포에 관해 書狀을 올리다	實錄
1597	宣祖 30		51	公州牧使에 제수되다	族譜
1600	宣祖 33		54	瑞興府使에 제수되다	族譜
1601	宣祖 34	04 24	55	洪州討逆功臣 3등으로 결정되다	實錄
1602	宣祖 35	03 27	56	軍資監正에 제수되다 洪州牧使에 제수되다	實錄·族譜 族譜
1603	宣祖 36	09 17	57	憲府에서 清難功臣 2등의 入錄改正을 논하다	實錄
1604	宣祖 37	06 25	58	清難功臣 3등으로 冊封되다	實錄
		08 12		長興府使로 제수되다	實錄·族譜
		10 29		清難功臣 3등의 敎書가 頒給되다	實錄
1605	宣祖 38		59	兵曹參議에서 同副承旨로 陞差되다	族譜
1606	宣祖 39	06 12	60	南原府使에 제수되다	實錄·族譜
1608	光海 즉	02	62	忠清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다	族譜
		08 21		忠清道兵馬節度使에서 推考되다	實錄
		09 03		忠清道兵馬節度使에서 遞差되다	實錄
1610	光海 02	12 24	64	管押使로서 皇帝가 아프다는 것을 치계하다	實錄
1611	光海 03	12 07	65	永興府使에서 체차되다	實錄
1615	光海 07	+8 10	69	문정전과 명정전의 터를 살피다	實錄
1618	光海 10	01 04	72	廢母論을 주장하다	實錄
1623	仁祖 01	01 07	77	卒去하다	族譜
1804	純祖 04	11 18	+179	勳籍으로 禮曹判書에 贈職되다	實錄
1811	純祖 11	06 19	+186	忠翼公으로 諡號되다	實錄

29)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全16冊. (大田: 譜文出版社, 2002).

忠翼公 辛景行은 明宗 2(1547)년에 출생하여 27세가 되던 宣祖 6(1573)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31세가 되던 宣祖 10(1577)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宣祖 25(1592)년 9월에 韓山郡守에 제수되어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義兵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宣祖 29(1596)년 7월에 李夢鶴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는데 貢獻하였으며 선조 30(1597)년에는 公州牧使에 제수되고 선조 33(1600)년에는 瑞興府使에 제수되었다. 宣祖 35(1602)년 3월에는 軍資監正에 제수되었으며 宣祖 37(1604)년 10월에는 李夢鶴의 난을 진압한 功으로 淸南公신 3등에 봉해졌다.

忠翼公 辛景行은 清難功臣이 된 후에 靈山君에 봉해졌고 長興府使, 兵曹參議, 南原府使, 忠淸道兵馬節度使, 管押使, 永興府使 등을 지냈다. 光海君朝에 이르러 國政이 혼미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忠北 槐山郡 靑安의 礪溪로 돌아와 釣隱亭을 세우고 尹根壽,³⁰⁾ 柳根,³¹⁾ 崔崱,³²⁾ 李好閔³³⁾ 등과 더불어 후일을 보냈다.³⁴⁾

30) 尹根壽(1537-1616) :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子固, 호는 月汀·畏菴이었고 본관은 海平이다. 李滉의 문인으로 1558(명종 13)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이래 1567(명종 22)년 賜暇讀書를 했다. 1573(선조 6)년 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宗系辨誣를 하고 1589(선조 22)년 工曹參判으로 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다시 宗系辨誣를 했다. 1590(선조 23)에 宗系辨誣의 공으로 光國功臣 1등 海平府院君으로 봉해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禮曹判書로 등용되어 왕을 扈從하여 1604(선조 37)년 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으며 1606년 선조가 薨去하자 왕의 廟號를 祖로 칭할 것을 주장하여 실현케 했다. 性理學에 밝아 李滉·曹植을 찾아 朱子和 陸九淵의 학문을 토론했고 成渾·李珣와도 막역한 사이였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당대의 거장으로 일컬어졌으며 특히 그의 글씨는 永和體라 하여 격찬을 받았다. 諡號는 文貞이며 저서로는 「四書吐釋」·「松都志」·「朝天錄」·「朝京唱酬」·「月汀集」·「月汀漫筆」 등이 있으며 글씨로는 <尹監正竹墓碣>·<李判書潤慶墓碑>·<尹延齡夫人朴氏碣> 등이 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p.547-548.>

31) 柳根(1549-1627) :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晦夫, 호는 西峒·孤山이었고 본관은 晉州였다. 李滉의 문인으로 司馬試를 거쳐 1572(선조 5)년 別試文科에 장원하고 1574(선조 7)년에 賜暇讀書를 했다. 1592(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義州에 임금을 扈從하여 吏曹參判에 특진되고 1604(선조 37)년 扈聖功臣 3등으로 晉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大提學에 이어 左贊成이 되었다. 광해군 때 大北派가 국정을 농단하므로 사직하고 槐山에 은거하다 1627(인조 5)년 정묘호란 때 강화에 왕을 호종하던 도중 通津에서 죽었다. 槐山의 花巖書院에 祭享되고 시호는 文靖이었다. 저서로는 「西峒集」이 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p.507-508.>

32) 崔崱(1539-1612) :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立之, 호는 簡易·東阜였고 본관은 開城이었다. 李珣의 문인으로 1555(명종 10)년에 진사가 되고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07(선조 37)년 吏曹參判에 이르러 사직하고 平壤에 은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외교문서 작성의 제1인자였으며 여러 차례

仁祖 원(1623)년 정월에 享年 77세로 卒去하였다. 그 후 純祖 4(1804)년에 禮曹判書³⁵⁾로 추증되고 純祖 11(1811)년에 忠翼公³⁶⁾으로 諡號³⁷⁾되었다.

한편 靈山·寧越辛氏 德齋公派 宗中에는 忠翼公 辛景行의 影幀도 소장³⁸⁾되어 있다. 이 영정은 忠翼公 辛景行이 淸難功臣에 책봉된 것을 기념하여 왕명에 의하여 그려진 것을 후대에 본떠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굴의 7할이 왼쪽으로 보이도록 하고 두 손은 소매 속에 모은 拱手形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正裝의 관복 차림에 의자에 앉은 자세이다. 이 影幀은 원본은 아니나 7할의 얼굴 표현, 양 어깨의 경사진 각도의 차이, 겹옷자락을 들고 앉으면서 생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곳 학자들로부터 名文章家라는 격찬을 받았다. 詩에 탁월하여 草·木·花·石의 4여종을 소재로 한 詩賦를 각 1편씩 지었다. 그의 글과 車天輅의 시 및 韓濩의 글씨를 松都三絶이라 일컬었다. 글씨는 松雪體에 일가를 이루었으며 문장은 擬古文體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簡易集」·「周易本義口訣附說」·「漢史列傳抄」·「十家近體」 등이 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958.>

- 33) 이호민(1553-1634) :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孝彦, 호는 五峰·南郭·睡窩였고 본관은 延安이다. 1579(선조 12)년에 진사가 되고 1584(선조 17)년 別試文科 乙科로 급제하였으며 1592(선조 25)년에 吏曹佐郎으로 義州에 왕을 호종하여 1604(선조 37)년에 扈聖功臣 2등으로 延陵君에 봉해졌다. 명나라와의 외교문서를 도맡아 기초하고 2차에 걸쳐 명나라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1623(인조 원)년 인조반정 이후 鄉里에서 詩酒로 소일했다. 知禮의 道東鄉祠에 祭享되고 시호는 文僖였다. 저서로는 「五峰集」이 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760.>
- 34)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全16冊. (大田: 譜文出版社, 2002.) 第1卷. pp.18-19.
- 35) 春秋館 編, 純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純祖 4年 11月 癸卯條. 吏曹 因儒生上言 覆啓以故靖[淸]難功臣靈城君辛景行勳籍 … .
- 36) 春秋館 編, 純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純祖 11年 6月 乙丑條. 諡望下批 … 贈禮曹判書辛景行忠翼 … .
- 37) 純祖가 辛景行에게 내린 2매의 諡號記 중 1매에는 “禮曹判書 辛景行 忠翼公 危身奉上 曰忠 思慮沈遠 曰翼 嘉慶十六年(1811)正月 日出 正言 權○○ 大司諫 司諫 獻納 李○一 正言”라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1매에는 “禮曹判書 辛景行 忠翼公 危身奉上 曰忠 思慮沈遠 曰翼 嘉慶十六年 月 日 掌令 車○○ 持平 行大司憲諫 執義 掌令 鄭○一 持平”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教旨 1매에는 “奮忠出氣淸難功臣 贈資憲大夫禮曹判書 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 行嘉善大夫忠淸道兵馬節度使 靈城君 辛景行 贈諡忠翼公者 危身奉上曰忠 思慮沈遠曰翼 嘉慶十七年(1812)正月 日”이라 기록되어 있다.
- 38) 1986년 4월 28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에 8월 21일에 <淸難功臣錄券>과 함께 보물 제1380호로 일괄 지정되어 현재 國立淸州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세모꼴의 형태, 옷자락의 트임새, 바닥에 깔린 彩氈 등에서 조선시대 중기의 功臣影幀들에서 보이는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忠翼公 辛景行 影幀



그러나 忠翼公 辛景行의 생시에 사용되던 冠帽의 높이는 낮았던 것에 비하여 이 影幀에는 관모가 높게 표현되어 影幀이 새로 그려진 시기가 다소 후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3.2 本文의 內容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에는 수급자에 관한 기록이 끝나고 본문에 해당하는 功勳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清難功臣의 愛國觀과 功績에 대한 致辭와 褒賞規定이 기록³⁹⁾되어 있다.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에 기록된 清難功臣의 愛國觀과 功績에 관한 致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왕께서 이르시기를 ‘大義⁴⁰⁾로 일어나 妖氣⁴¹⁾를 淨化하여 壯節⁴²⁾이 이미 戡難⁴³⁾의 功效로 나타났으니 그 茂勳⁴⁴⁾을 策錄하고 彝器⁴⁵⁾에 새겨서 寵典함에 있어 어찌 은혜로운 綸旨⁴⁶⁾를 疏封하여 布章物采⁴⁷⁾ 등의 渙發⁴⁸⁾을 늦출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그대가 일찍부터 위사람을 잘 應對하여 僻境에는 奇才⁴⁹⁾를 빌어 郡符⁵⁰⁾를 살피고 笑談⁵¹⁾을 통하여 鳴琴⁵²⁾의 교화를 이루어 郎署⁵³⁾에 적용시켰으며, 詞采⁵⁴⁾로써 숙직하는 班列을 감동시켜 湖西 軍幕의 나태한 官僚들을 체포하였던 것이도다! 더욱이 逆豎⁵⁵⁾의 構難⁵⁶⁾이 창졸간에 일어나서 여러 郡을 잇따라 陷落시키고 그 사나운 불꽃이 이미 燎原⁵⁷⁾을 압박하였어도

39)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本文部 參看.

40) 대의(大義) : 人倫의 중대한 義理를 의미하는 것이다.

41) 요기(妖氣) : 祥瑞롭지 못하고 妖邪스런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다.

42) 장절(壯節) : 굳은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43) 감란(戡難) : 國難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4) 무훈(茂勳) : 뛰어난 공훈을 의미하는 것이다.

45) 이기(彝器) : 宗廟에 갖추어 두고 의식에 쓰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다.

46) 윤지(綸旨) : 詔勅이나 詔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47) 포장물채(布章物采) : 아름다운 文事와 여러 物事を 의미하는 것이다.

48) 환발(渙發) : 詔書·勅令 등을 發布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9) 기재(奇才) : 세상에서 드문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50) 군부(郡符) : 고을의 符信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소담(笑談) :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2) 명금(鳴琴) : 거문고를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포와 같은 소리를 비유하는 것이다.

53) 낭서(郎署) : 尙書郎이 있는 官署를 의미하는 것이다.

54) 사채(詞采·詞彩) : 말의 아름다움, 轉하여 詩文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55) 역수(逆豎) : 도덕에 어그러진 일을 하는 교약한 놈을 의미하는 것이다.

56) 구난(構亂) : 서로 禍難을 맺어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長驅⁵⁸하였으나, 장차 上都⁵⁹를 침범하려는 흉악한 모략은 참으로 射日보다도 더 참혹하였던 것이도다! 睢陽⁶⁰의 한 고을에 역적들이 이미 모든 무기로써 包圍를 해오니 陝西⁶¹의 여러 人士들이 그 누군들 投袂⁶²하며 급히 보고하지 않을 수 있었겠던가! 그대가 이에 賊徒들을 섬멸하여 會食의 자리에서 效忠⁶³을 기약하였으며, 君主를 배반하지 않고 서로 自制하고 戮力⁶⁴하여 上將軍의 威柄⁶⁵을 빌어 孤城⁶⁶의 土心을 鎮撫하였던 것이도다! 常山의 守備⁶⁷가 크게 정비되고 邠寧⁶⁸의 聲援⁶⁹이 점차 강성해지자 逆順⁷⁰의 세력은 이미 판가름이 났던 것이도다! 勝敗의 形局이 점차 飛走⁷¹쪽으로 기울자 궁지에 몰린 賊黨들이 城下에서 乞命⁷²을 요구하므로 城下의 退路를 막고 渠魁⁷³의 목을 베어 行間⁷⁴에 던짐으로써 사나운 賊徒들을 모두 소탕하였던 것이도다! 다시금 湖甸⁷⁵을 정비함으로써 비록 烈士⁷⁶들의 倡義⁷⁷이기는 하였으나 大慙⁷⁸를 완전히 섬멸하였던 것이도다! 이는 모름지기 盡臣⁷⁹들이 서로 協心하여 謀略한 偉績이 없었더라면 그 어찌 賊徒를 蕩

57) 요원(燎原) : 平原을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8) 장구(長驅) : 멀리 적을 몰아서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9) 상도(上都) : 서울, 京師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60) 휴양(睢陽) : 河南省 商丘縣에 있는 지명으로 張巡이 安祿山の 叛軍을 막다 전사한 곳이다.

61) 섬서(陝西) : 陝西·寧夏都指揮 何錦 등이 守臣을 죽이고 官軍을 살해하며 거민을 도륙하는 등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62) 투매(投袂) : 소매를 떨치며 세차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3) 효충(效忠) :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4) 육력(戮力) :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5) 위병(威柄) : 威光과 權勢를 의미하는 것으로 威權이라곤 한다.

66) 고성(孤城) : 아무 도움이 없어 고립된 城을 의미하는 것이다.

67) 상산지수비(常山之守備) : 전후좌우가 서로 응하고 합하여 빈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8) 빈녕(邠寧) : 陝西省 邠縣과 寧夏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69) 성원(聲援) : 옆에서 소리 내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0) 역순(逆順) : 거역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1) 비주(飛走) :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飛禽走獸라고도 한다.

72) 절명(乞命) : 목숨을 살려 달라고 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3) 거괴(渠魁) : 惡黨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魁首라고도 한다.

74) 행간(行間) : 軍中을 의미하는 것이다.

75) 호甸(湖甸) : 湖西와 京畿를 지칭하는 것이다.

76) 열사(烈士) : 節義를 굳게 지키는 선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77) 창의(倡義) : 國難을 당하여 義兵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8) 대대(大慙) : 大惡人을 의미하는 것이다.

79) 신신(盡臣) : 忠君愛國하는 마음이 두터운 신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滅하여 竭誠⁸⁰으로 報國⁸¹할 수 있었을 것이겠는가! 그대가 匪躬⁸²으로 勉勵한 바를 爵酬⁸³함에 있어 내 어찌 감히 懋賞⁸⁴해야 함을 잊을 수 있을 것이겠는가! 마땅히 故典⁸⁵에 따라 뛰어난 功勞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으로 清難功臣 3등으로 策勳⁸⁶하는 바이다! 라고 하셨다.”⁸⁷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清難功臣의 愛國觀과 功績에는 李夢鶴의 난이 일어나자 여러 방도를 강구하여 난을 평정한 清難功臣 辛景行의 공적에 대한 치사가 기록되어 있다.

3.3.3 褒賞의 內容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에는 清難功臣의 愛國觀과 功績에 대한 致辭에 이어 褒賞規定이 기록⁸⁸되어 있다.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과 「宣祖實錄」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여 清難功臣에 대한 褒賞規定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⁹

80) 竭誠(竭誠) :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1) 報國(報國) :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2) 匪躬(匪躬) :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一身의 利害를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3) 작수(爵酬) : 爵位와 報償을 의미하는 것이다.

84) 무상(懋賞) : 성대한 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85) 고전(故典) : 옛날의 법식 또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86) 책훈(策勳) : 공훈을 책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7)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淸州博物館 所藏. 本文部 參看.

88)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淸州博物館 所藏. 本文部 參看.

8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清難功臣敎書 頒給時 宣讀別敎書 王若曰 … 茲以洪可臣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亦超三階 無子 則甥姪女婿 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十人 奴婢三十口 丘使七名 田一百五十結 銀子十兩 內廐馬一匹 朴名賢 崔湖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亦超二階 無子 則甥姪女婿 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六人 奴婢九口 丘史四名 田八十結 銀子七兩 內廐馬一匹 辛景行 林得義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亦超一階 無子 則甥姪女婿 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四人 奴婢七口 丘史二名 田六十結 銀子五兩 表裏一段 內廐馬一匹.

<표 4> 清難功臣의 等級別 褒賞規定

等級	褒賞規定 翻譯文	褒賞規定 原文	備考
1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형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할 것 ·당사자에게 관작 3자급을 초친할 것 ·부모·처자도 관작 3자급을 초친할 것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2자급 가계할 것 ·적장에게 녹봉을 세습하여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할 것 ·반당 10인, 노비 30구, 구사 7명, 전지 150결, 은자 10량, 내구마 1필을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亦超三階 ·無子則甥姪女婿超二階 ·嫡長世襲不失其祿有及永世 ·仍賜伴僮十人奴婢三十口丘使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匹 	
2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형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할 것 ·당사자에게 관작 2자급을 초친할 것 ·부모·처자도 관작 2자급을 초친할 것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1자급 가계할 것 ·적장에게 녹봉을 세습하고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할 것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량, 내구마 1필을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婿超一階 ·嫡長世襲不失其祿有及永世 ·仍賜伴僮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匹 	
3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형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할 것 ·당사자에게 관작 1자급을 초친할 것 ·부모·처자도 관작 1자급을 초친할 것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할 것 ·적장에게 녹봉을 세습하고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할 것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량, 표리 1가, 내구마 1필을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亦超一階 ·無子卽⁹⁰甥姪女婿加階 ·嫡長世襲不失其祿有及永世 ·仍賜伴僮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⁹¹內廐馬一匹 	

이를 보면 청난공신 3등 忠翼公 辛景行에게는 (1) 圖形을 그려 후세에 전하게 할 것, (2) 당사자에게 官爵 1자급을 超遷할 것, (3) 부모와 처자에게 관작 1자급을 초친할 것, (4)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婿를 加階할 것, (5) 嫡長에게 祿俸을 세습하

90) 宣祖實錄의 當該記事에는 “則”으로 기록되어 있다.<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91) 宣祖實錄의 當該記事에는 “表裏一段”의 기록이 없다.<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고 赦宥의 은전을 받게 할 것을 규정하고 (6)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량, 표리 1가, 내구마 1필을 부상으로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3.3.4 等級別 功臣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말미에는 清難功臣의 功臣等級과 등급에 따른 功臣名이 기록⁹²⁾되어 있다.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말미에는 “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 崔湖 三等 辛景行 林得義”로 清難功臣 5명에 대한 等級과 功臣의 姓名이 기록되어 있다.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기록에 의하면 清難功臣은 도합 5명으로 清難功臣 1등에는 洪可臣⁹³⁾, 清難功臣 2등에는 朴名賢⁹⁴⁾과 崔湖⁹⁵⁾, 清難功臣 3등에는

92)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卷末部 參看.

93) 洪可臣(1541~1615) :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興道, 호는 晩全堂·良翁이고 본관은 南陽이며 泚의 아들이었다. 閔純의 문인으로 諸子百家에 통달하고 詩文과 필법에 뛰어나 칭송을 받았다. 1567(명종 22)년에 進士試에 합격1571(선조 4)년에 康陵參奉이 되고 그 재주를 인정받아 禮賓寺主簿에 특진, 이어 刑曹佐郎·持平을 거쳐 1584(선조 17)년 安山郡守를 지냈다. 15889(선조 21)년 水原府使로 救荒에 공이 있어 表裏를 하사받았으나 평소에 鄭汝立과 가까이 지냈다하여 1589(선조 22)년 정여립의 모반사건 후 과직 당했다가 1593(선조 26)년 坡州牧使가 되고 이듬해 洪州牧使로 부임하여 1596(선조 29)년에 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民兵을 규합한 뒤에 무장 朴名賢·林得義 등과 함께 난을 평정했다. 江華府使·刑曹參判·江原道觀察使·開城府留守 등을 지내고 1604(선조 37)년에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清難功臣 1등에 책록, 이듬해 寧原君으로 봉해졌다. 광해군 조 掌隸院正·漢城府右尹 겸 知義禁府事 등을 거쳐 1610(광해군 2)년에 刑曹判書에 이르러 致仕하고 牙山에서 죽었다. 아산의 仁山書院과 온양의 靜退書院에 祭享되었으며 諡號는 文莊이다. 저서로는 「晩全集」·「晩全堂漫錄」 등이 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1027.>

94) 朴名賢 : 조선의 무신으로 본관은 竹山, 延城府院君 元亨의 후손이다. 1596(선조 29)년에 李夢鶴이 난을 일으켜 洪州를 위협할 때 목사 洪可臣의 휘하에서 무장 林得義와 함께 洪州城을 지켰으며, 군사를 이끌고 적을 靑陽까지 추격하여 섬멸했다. 1597(선조 30)년 丁酉再亂 때는 討捕使에 이어 忠淸道防禦使, 全羅道兵馬節度使 등의 요직을 지내면서 분전했다. 1604(선조 37)년 清難功臣 2등이 되고 延昌君에 봉해졌으며 위계는 資善大夫에 이르렀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271.>

95) 崔湖(?~1597) : 조선의 무신으로 일찍이 武科에 급제하고 1576(선조 9)년에 武科重試에 장원하였다. 여러 벼슬을 거쳐 1594(선조 27)년 威鏡南道兵馬節度使로서 野人에게 甘坡堡를 함락 당하여 건책을 받았다. 1596(선조 29)년 忠淸道水軍節度使로서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

辛景行과 林得義⁹⁶⁾임을 알 수 있다.

3.3.5 發給 및 施行時期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에는 清難功臣의 功臣等級과 등급에 따른 功臣名에 이어 <清難功臣錄券>의 발급과 시행의 시기가 기록⁹⁷⁾되어 있다.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말미에는 “萬曆三十二年十月日”로 <清難功臣錄券>이 각각의 功臣들에게 발급되고 시행된 年度와 日字가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清難功臣錄券>은 萬曆 32(1604, 宣祖 37, 甲辰)年 10월에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宣祖實錄」에 나타나는 기록⁹⁸⁾⁹⁹⁾을 통해서 볼 때 錄券의 發給日字는 “29(乙亥)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發給 및 施行年度 위에는 “施命之寶”라는 印章이 날인되어 있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본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은 조선시대 중기의 功臣과 錄券의 概括은 물론 政治·社會·文化事情의 단면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1597(선조 30)년 丁酉再亂에 漆川梁 해전에서 元均 등과 함께 패사했다. 1604(선조 37)년 앞서 李夢鶴의 난 때의 공으로 清難功臣 2등에 追錄되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969.>

96) 林得義(?~?): 조선의 무신으로 자는 子房, 본관은 平澤이며 府使 植의 아들이었다. 1596(선조 29)년 李夢鶴이 鴻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洪州牧使 洪可臣을 따라 朴名賢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1604(선조 37)년 清難功臣 3등으로 平城君에 봉해졌고 1609(광해군 원)년에 慶尙右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韓國人名大事典 編纂委員會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779.>

97)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卷末部 參看.

98)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行三功臣 宣教禮.

99)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宣祖 37年 10月 乙亥條. 功臣頒教書.

4. 結論

이상에서 <清難功臣錄券>에 관하여 고찰한 바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清難功臣은 선조 29(1596)년에 일어난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을 세운 功臣들에게 내려진 功臣號이며, 元勳功臣 5명 原從功臣 995명이 책봉되었다.

(2)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은 敎書형태로 清難功臣 제3등 辛景行에게 賜給된 錄券으로 물리적 형태는 폭 38.0cm 길이 162.0cm의 卷軸裝 형태이며 체제적 형태는 敎書의 형태이다. 필체는 楷書體이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良好한 상태이다.

(3)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첫머리에는 “奮忠出氣清難功臣 通政大行長興都護府使 辛景行”과 같이 清難功臣號와 수급자의 職銜 및 수급자 姓名이 기록되어 있다. 辛景行은 道伯 호는 約隱이었으며 본관은 靈山이었다. 辛景行은 明宗 2(1547)년에 출생하여 宣祖 37(1604)년 10월에 李夢鶴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淸南공신 3등에 봉해졌다. 清難功臣이 된 후에 靈山君에 봉해졌고 長興府使, 南原府使, 忠淸道兵馬節度使, 永興府使 등을 지냈으며 仁祖 원(1623)년에 졸거하였다. 純祖 4(1804)년에 禮曹判書로 추증되고 純祖 11(1811)년에 忠翼公으로 諡號되었다. 현재 그의 影幀도 전래되고 있다.

(4)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 본문에는 清難功臣의 愛國觀에 대한 致辭와 褒賞規定이 기록되어 있다.

(5)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의 말미에는 “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 崔湖 三等 辛景行 林得義”로 清難功臣의 功臣等級과 등급에 따른 功臣名이 기록되어 있으며, <清難功臣錄券>의 발급과 시행의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發給 및 施行年度의 위에는 “施命之寶”라는 印章이 날인되어 있다.

(6) 忠翼公 辛景行 <清難功臣錄券>은 조선시대 중기의 功臣과 錄券의 概括은 물론 政治·社會·文化事情의 단면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忠翼公 辛景行 受給 〈清難功臣錄券〉.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 忠翼公 辛景行 受給 諡號記.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 忠翼公 辛景行 受給 教旨. 國立清州博物館 所藏.
-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全16冊. 大田, 譜文出版社, 2002.
-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宣祖修正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純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